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1월 24일 (제103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림

어떤 그림을 그릴까?

기도원 호텔공사를 계획하고, 또 목사후보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원에 머무는 동안 하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봤다. 목회하면서 붓을 멀리했으니 실로 오랜만의 일이다.

그림을 바라보자니 새삼스레 '인생은 내가 그리는 그림이고, 내가 만드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어떤 색깔을 칠할 것인지 그건 오롯이 내 선택이듯 인생 역시 그러하리라.

누구든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무엇을 그릴지 생각한다. 마음으로 그릴 것을 생각하고 구도를 잡은 후 스케치를 시작한다. 스케치에는 지우개가 필수다. 내 생각을 단번에 그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더 나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 스케치가 완성되면 다양한 색깔을 입혀 작품을 완성한다.

인생이란 작품도 그렇다. 내 인생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시발점은 내 생각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생각한 후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케치한다. 그리고 실행하면서 그 위에 색을 칠하면 인생이 완성된다.

옛말에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로도 그릴 수 있다'고 했다. 생각을 크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각이 커야 큰 그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주저하지 말라. 단번에 스케치를 끝내는 자가 흔할까. 실수와 실패를 경험이라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된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 지우개라고 하지 않던가. 그리고 열정과 노력과 긍정으로 색을 입히면 아름다운 작품, 멋진 인생이 된다.

작품이 안 될 때, 그리다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 그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사 더 멋진 작품, 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留皮 人死留名)이라 했으니 멋진 작품을 만들자.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집회를 위해 더반(Durban)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공항에는 영접하는 사람은 없고, 기사와 낡은 봉고차 한 대만 보내진 상태였다. 그곳의 영적 대부인 로버츠(F. Roberts) 목사의 초청으로 갔는데 대우가 그야말로 바닥이었다. 이에 일행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개하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럴까 생각해야 한다. 남아공의 영적 대부라는 분이 나에게 왜 이런 대접을 할까? 나는 이걸 테스트라고 생각한다." 목사님의 말씀은 적중했다. 로버츠 목사는 한 차례 목사님 집회를 참석한 후부터 웅숭한 대접을 했고, 밤에 찾아와서 자존심을 버리고 목사님께 성경에 대해 묻곤 했다.

유가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는 거야. 그러나 여유가 없으면 덤벼대다가 실수하게 되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의 열편 강의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나는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거란다. 왜냐? 해산의 수고로 난 양 떼를 너희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잘못하면 양 떼가 다치고 길을 잃게 되니까.

목회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 있단다. 먼저는 매사 협력의 구도로 가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지. 서로 싸우며 대결의 구도로 간다면 공멸할 뿐이지만 사랑으로 감싸고, 남이 잘될 때 박수를 쳐주고 내가 낮아지면 협력할 수 있

해라. 다섯째, 실수를 바로 인정해라.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용기 있는 자야. 감추다 보면 일이 커지고 거짓말이 늘게 된단다. 다섯째,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명은 자기를 부리는 자에게 목숨까지 내놓는 거다. 그러니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지. 성경에는 사명에 부도난 자들은 많이 맞다고 했다. 그러니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여섯째, 게으름, 대중, 부정의 생각, 이 삼총사를 잡지 않고는 절대 목회에 성공할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모든 것을 한 마디로 할까? 바로 '변화'다. 너희는 변화해야 한다. 어제의 나를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해. 자신도 변화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변화시



31기 목사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선한목자 되기를

'11월 13일, 12시까지 88체육관으로 모여라.' 목사님이 31기 목사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그런데 목사님은 다시 장소를 이태원 본부 사무실로 바꾸셨다. 그리고 누가 몇 시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한은택 목사에게 지시했다. 장소가 갑자기 바뀐 탓에 지각생이 발생했다.

후보생 모두가 다 도착한 후에 목사님은 "내가 왜 장소를 바꿨을까? 여유 있게 출발한 자는 중간에 장소가 바뀌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다. 기도원에서 아침 인사가 '굳모닝, 여유를 가집시다.' 아니었니? 매사 여유를 가져야 한단다. 약속시간에 달랑달랑 오는 것 안 된다. 여유를 가지고 출발해야지. 여

기 된단다. 둘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 사람의 중심을 봐야 해. 권력 좀 있고, 돈 좀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드는 자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사람은 절대 도울 힘이 없어. 괜히 그런 자를 의지하면 악연만 만들 뿐이지. 셋째는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오라고 하셨지.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버리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란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것보다 높음을 인정하고 순종해라. 넷째, 목회에 요행은 없다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지. 자업자득이라는 거다. 그러니 무엇을 심을지 너희가 생각

킬 수 있겠니?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거야. 부디 나와 싸워 이겨 나를 향상시키고, 그리스도화 돼라. 남을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때려가며 나를 변화시켜라.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 돼. 기도원에서 감을 전지하는 것 봤지? 나쁜 것을 잘라버릴 때 실한 감을 맺는 거란다."

목사님은 설교하는 법, 찬양 인도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치셨다. 그리고 후보생 하나하나 설교를 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

"종의 영광 감절과 능력 감절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소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분명 하늘에 닿았으리라.

신묘수 전도사

추계산상집회

11월 25일(월) ~ 28일(목)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살전5:10~23)



복받은 자들의 공통점, 범사에 감사했다

감사는 느낄 감(感), 사례할 사(謝)로,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자는 사례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회사에 인턴제도가 있었습니다. 인턴 과정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정사원으로 뽑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의 인턴기간이 끝나고 몇몇 사원은 정사원으로 뽑혔습니다. 정규직 채용에서 탈락한 자들은 툭툭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사원만은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사의 책상에 올려놓고 돌아갔습니다. 편지 내용인즉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회사가 번창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상사는 사장에게 이것을 보고했고, 사장은 그 사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나를 데려다주는 날개이며, 건너지 못할 강을 넘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3부 성가대장인 염상섭 장로입니다. 그 장로는 한때 안면마비로 입이 돌아갔었는데, 그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말 잘하라고 입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간증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시대 목사에게 한 모양입니다. 이시대 목사도 감사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원에서 뺨뺨어진 입으로 침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입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은 물론이고, 사업이 불일 듯 일어나 지금 세계 곳곳에 염 장로 회사의 제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항암제요 소독제요 성장촉진제다

염 장로에게는 몸이 아픈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 장로는 이런 아들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그놈 때문에 사람이 됐습니다. 겸손해지고, 남의 고통을 알게 되었으니 그놈이 제게는 복덩어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때려도 감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우리 직원 중 하나가 입사했는데 거할 방을 얻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제가 어느 장로에게 보증금을 좀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장로는 제 말에 돈을 선뜻 빌려줬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이 직원이 감사의 말을 적은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을 그 장로에게 전달한 모양입니다. 그 장로는 '지금까지 돈 빌려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그 돈을 다 탕감해줬습니다. 이런 일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고속터미널 옆 건물을 땅끝예수전도단 본부로 사용할 때입니다. 그 건물주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건물 빌려주고 감사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우리가 내는 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 얘기도 할까요?

저는 목회 35년 동안 오직 감사만 했

습

사실 제가 걸어온

길은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아

같은 힘든 길인지라 원망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교계로부터의 제명, 마스크의 매도, 부모, 형제, 친구까지 떠났으니 원망의 조건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나를 주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 만물의 찌꺼가 봐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세계복음화의 기수로 세워주셔서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사 세계교구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우편배달부가 배달을 하면서 오가는 길에 꽃씨를 뿌렸더니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지나가는 길이 온통 꽃길이 되었다지 않습니까? 계속 감사해보세요. 그 열매가 맺히고, 삶이 꽃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은 감사가 기초가 된 나라입니다. 영국 제임스 1세의 종교탄압이 극심해지자 102명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 1620년 9월, 7년 동안의 노동으로 사들인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거센 풍랑과 싸

우며 65일 만에 신대륙 아메리카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토병과 인디안 원주민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첫 수확한 것으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사 세계 최대 국가인 미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넘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모

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창수가 나면 삼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마



총회장 이초석 목사

7:24~27).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일이면 들

어갈 가나안을 40년이나 걸려 들어갔나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전10:10).

성공한 자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역을 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과 재산은 물론이요, 자신의 몸에 악창이나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비운의 사나이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욥1:22).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욥42:12~17).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아들 암살됨을 피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라고 감사했고, 바울 역시 그가 주리고 헐벗고 매 맞으며 세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전15:10)라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빌4:6).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11:41)라고 먼저 고백하신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과 축복을 낳는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돼지가 매일 꿀꿀거리는 것처럼 불평한 결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과 에서가 그랬습니다. 또 왕 자리까지 주셨건만 감사하지 못한 사울, 예수님이 그를 믿어 돈까지 맡겼건만 감사하지 못한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중고자동차를 줬는데, 한 사람은 중고라고 불평했고, 한 사람은 중고를 주셔서 고치는 동안 자동차 박사가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쪽에 애정이 갈까요?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렸을 때 경사가 났다며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머니가 완쾌되었고, 안 믿던 형제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나 에스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되레 감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어느 전도사를 발령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좌천으로 생각해서 신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너를 믿으니까 그곳으로 보내는 거야. 감사해야지.'라고 말해줬습니다. 조장, 구역장으로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으니까 직분을 주신 것이니까요(딤후1:12).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살전5:18). 그 앞 절부터 이어보면 매사 선을 좇는 자는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살전5:15~18).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부모와 형제에게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세요. 직장을 앞선해주시는 분께도 감사하고, 직장 상사나 부하직원에게도, 이웃에게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인생과 신앙의 성장촉진제요, 항암제요, 소독제일 뿐 아니라 비료로 우리 삶을 병들지 않고 풍요롭게 성장시켜주시니까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행복과 축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용달생 ::

소생케 하는 하나님 말씀

‘조지 프리데릭 헨델(George Frideric Handel)’은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작곡가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최고의 음악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여러 차례의 파산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중풍까지 걸리게 되는 등 지독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괴로움 속에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친구가 성경책을 헨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는 말씀을 보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듯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음악으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성경책과 함께 밤낮을 지낸 24일 뒤, ‘메시아(Messiah)’라는 대작이 탄생되었습니다.

메시아는 복음서와 이사야서, 시편, 요한계시록 등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오라토리오입니다. 1743년 런던에서 메시아 공연이 있을 때, 제2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합창 ‘할렐루야(Hallelujah)’가 울려 퍼지자 공연에 참석했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할렐루야 연주가 시작되면 객석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고, 곡이 끝나면 박수를 치고 앉는 것이 예의로 되었습니다.

헨델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으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침체기에서 소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둠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성경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실천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히브리서 4:12)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우리를 항상 보살피시며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소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

Dr. 이관섭 장로
kslee@krri.re.kr

:: 신앙논객 ::

뒷말은 외식이요 위선이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읽고 썼던 책을 고르라면 단연 잠언(箴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기에도 좋고, 언제 어떤 장을 읽어도 유익하며 삶의 지혜라 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다.

얼마 전, 잠언 전체를 읽으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입술, 혀, 말을 조심하라는 교훈이 담긴 구절들만 체크해보니 100개도 넘는 것이다! 마치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의 말에 달려있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살펴봐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정치인의 경솔한 발언 하나에 정당 전체의 이미지와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사장의 말 한마디에 기업의 주가가 요동을 친다. 연예인이며 운동선수며, 또 최근에 떠오르는 직업군인 동영상 크리에이터들도 말 한마디로 그간 힘들게 쌓았던 인기와 명성을 한 방에 날리고 천 냥 빚을 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교회와 종교계에도 예외일 수 없다. 목회자가 설교 중간에 잘못 든 예화 하나, 심방 중에 무심코 입 밖으로 튀어나온 속마음,

교제와 모임 가운데서 오고 가는 사소한 말실수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무뎠히도 아프게 한다.

그중에서도 성도들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고 교회를 균열시키는 게 바로 ‘뒷말’, 즉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外飾)이요, 위선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그 말들은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특히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성령을 훼방하는 죄가 다른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훼방하는 죄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누군가에 대해 말을 하려면 마치 그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의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자.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신혁주 전도사**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즘 참 좋은 자동차가 많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눈길이 가는 멋진 수입차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도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강남대로에 가면 한 대 당 집 한 채씩 하는 차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힐 때는 몇 천만 원 하는 차도, 몇 억을 호가하는 차도 별 수 없습니다. 소형차나 낡은 차와 마찬가지로 길에 서있어야 합니다. 뽀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차라고 그 앞만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대체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 없고 못 배운 사람보다 잘 나갑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 부귀를 손에 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도 부모들은 자식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가다가 교통체증을 만나

게 된다는 겁니다. 가다가 인생의 정체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안 밀리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으로 빠른 길, 최단 길을 찾아가지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가장 빠른 길,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낡은 차 같은 우릴지라도, 비록 소형차 같은 우릴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야 차에 탑재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을,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힘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예수중심편집실**



:: 생명의 말씀 ::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얼마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다. 치매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된 이후로 오랜 기간을 요양병원에 계셨다. 심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신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심방을 가도 눈을 감고 혀끝의 숨을 몰아쉬기도 힘들어하셨다. 임종 직전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나는 소천하시기 전에 꼭 눈을 마주하며 기도해드리길 원하여, 조금만 생명을 연장해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갔다. 다행히 호흡이 안정되셔서 중환자실에서 기도해드린 순간, 눈을 번쩍 뜨시더니 나를 비롯하여 함께한 일행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하기 시작하셨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얼굴이 편안해 보이셨으며, 눈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듯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소천하셨다.

임종 직전의 마지막 그 눈빛과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이생에서의 마지막 눈 맞춤이었다. 분명 그 영혼은 기도를 들었고, 이제 준비되었다는 듯한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았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이제 영원 속으로 진입하고, 한 사람은 시간 속에 남겨지는 엄

숙한 순간이다. 그 강렬했던 순간이 여운으로 남는다. 생과 사의 거리가 그리 멀지만은 않게 느껴졌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늘 죽음의 그늘이 그 앞에 드리워져 있음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삼상20:3)고 표현했으며, 사도 바울도 ‘내가 그들 사이에 끼였으니’(빌1:23)라며 생과 사의 멀지 않은 거리를 표현한다.

영원으로 간 사람은, 시간 속에 남겨진 사람에게 무언의 말을 남긴다. 반드시 영원을 준비하라고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법을 알아야 하며, 그래서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이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전 7:2).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히 9:27), 우리 삶은 반드시 죽음 이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이 누구에게 떨어지는 낙엽처럼 가벼운 존재의 허무함으로 금방 잊힐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시 116:15).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우주적 존재감으로 성도를 영광스럽게 받으시기 때문이다. **송직화 목사**

십자가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자신뿐만 아니라 31기 목사 후보생 모두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고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 목사님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교육에 임하라고 하실 때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고 내려가자고. 그래서 첫날부터 10시간을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금식과 교육에 임했습니다.

그런 결심 때문이었을까요? 금식 이틀째부터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후 금식이 편했고, 3일째부터는 운동도 할 수 있을 만큼 새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7일 금식을 너무나 편하게 마쳤습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21일 금식을 할 수도 있다고 하

셔서 잠시 걱정도 했지만,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뜻을 정하자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 교육시간마다 정말 감탄이 나오는 말씀과 목사님의 목회경험담을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이 역사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깨우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끔 흘러나오는 감탄사는 너무나 행복한 깨달음의 표현과 행복이었던 듯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총회장 목사님의 교육은 더욱 뜨거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목사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갔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일이든 대충은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목회자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목사님이 직접 보여주는 12일간의 교육이었습니다. “선한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샅곳처럼 돈에 능력을 팔지 말고, 믿음을 팔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매일 구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아 목회현장으로 나아가라.”, “한쪽 날개에 능력을, 그리고 다른 한쪽 날개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목회자가 한쪽 날개만 가지고 목회하면 제자리만 빙빙 도는 목회가 되고 만다.”, “목사가 말씀을 모르는데 양을 어떻게 올바르게 인도하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뿐이다.”... 목사님은 35년 목회에서 얻은 비밀과 비결을 아낌없이 가르치셨고, 매일 기본 7시간 반을 기도시킴과 성경탐독을 권유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진심으로 우리 31기 목사후보생 모두가 능력 받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녹아있었고, 그것은 후보생들 가슴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에든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목회자에게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본이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을 입고, “귀신만 쫓으면 다냐?”라는 말에 담대하게 “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

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와 같은 용기가, 그런 믿음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함께한 저를 포함한 31기 12명의 목사후보생은 예수의 열두 제자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참 종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듯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최선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는 동안 선한목자의 길을 감당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마음으로 목회를 완수하겠습니다. 31기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월드 목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도착하는 대로 “작업복을 입고 사택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통해 3일간의 금식과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강의를 잘 듣기만 하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 가운데 젖어있던 나에게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니, 이 밤에 사택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작업복을 입고 오라는 것일까?”

그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 이해할 수 없을 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순종’ 뿐이었다.

사택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벤트 교육(?)이 준비되어 있었다. 원두막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 원두막은 13명 교육생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을 합쳐 들어 올리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총회장 목사님께서 다가오셔서 지침을 가하셨다.

“모르는 건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이 기도원에서 누가 이 일을 잘 알겠느냐? 원장이나 기도원 직원들은 원두막을 옮겨봤으니 잘 알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며 물어보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며 숨기는 게 나쁜 거다. 나는 너희가 시작을 했

으면 끝장을 보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한다.”

처음 시작하는 날, 안일한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다. ‘그래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우리의 첫날 교육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끝이 날 수 있었다.

다음 날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아침 6시부터 기도한 후에 목욕하고 사택으로 9시까지 나오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압수하시고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워 주시며 강한 메시지를 주셨다.

“핸드폰을 빼앗긴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어떨까?”

솔직히 부끄러웠다. 웬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친한 벗이 떠난 것 같이 허전했다. 나를 돕던 어떤 존재감이 나에게서 없어진 것만 같았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며 정보를 얻는다는 핑계로 의지하고 있었던 게 확실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핸드폰은 감옥과도 같다.”며 사로잡히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리고는 마스크를 주시면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잠18:21) 교육기간 동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는 데 집중하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아가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나아가길 바란다. 금식한다고 힘든 척하지 마라. 아픈 척하지 마라. 너희의 자세가 망가지면 상대도 망가진다. 그래서 아침에 꼭 목욕하고 나오라고 한 것이다. 너희들이 아침 6시부터 기도할

때에 나는 5시부터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다. 나의 호(號)가 무엇이나? 봉우(朋友)가 아니더냐? 나는 너희에게 친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 가슴이 멍멍하고 뜨거워지는 시간이었다.

‘우리를 위해 저토록 기도해주시는 오직 한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번 교육에 하나님의 큰 관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너희들은 오늘 이렇게 뜻을 정해라. 목사님의 저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의 영감이 감절로 온다. 금식하면 건강이 온다!”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하고 가야 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귀한 말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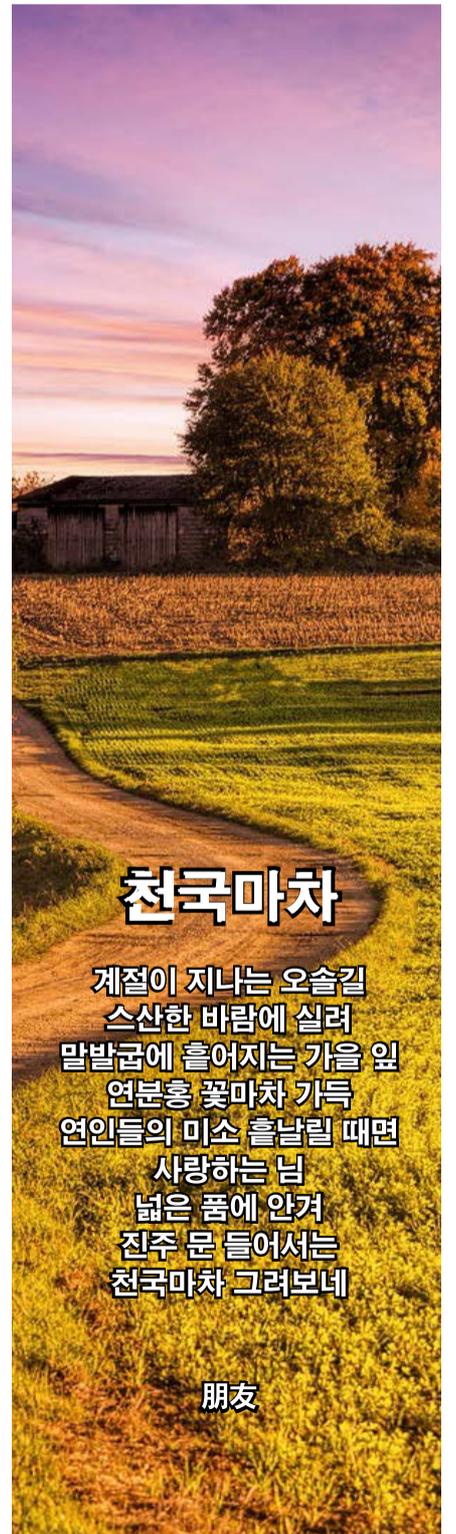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자가 되리라(히3:14)”

첫날 첫 시간 교육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31기 목사 안수 후보자 교육생 여호수아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이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1기 목사 안수 후보자 교육생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친구 되시는 총회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목사



천국마차

계절이 지나는 오솔길
스산한 바람에 실려
말밭굽에 흩어지는 가을 잎
연분홍 꽃마차 가득
연인들의 미소 흩날릴 때면
사랑하는 님
넓은 품에 안겨
진주 문 들어서는
천국마차 그려보네

朋友